스토리 컨셉 기획

세계관

서기 2120년 인류는 시간을 화폐로 구입가능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화폐로 구입하거나, 자신의 수명을 은행에 맞겨 자본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된다. 정부는 시간을 사람과 사람간의 교환이 가능한 경우 범죄나 기타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해 무조건 정부기관을 통해 시간 교환을 하도록 했다. 해당 정부 기관의 이름은 타임 키퍼로 타임머신의 발명 이후 사람들이 미래와 과거를 마음대로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 관리 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다.